

협회, 이상필 협회장 직무대행 및 김남성 부회장 겸 기획이사 취임



이상필 협회장 직무대행

이상필 부회장이 지난 10월 21일 협회 정관에 따라 협회장 직무대행으로 부임했다.

이날 열린 임시이사회에서 이상필 협회장 직무대행은 “짧은 기간이지만 회원의 뜻을 받들어 위기를 극복하고 새로운 길을 찾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상필 협회장 직무대행은 미래세행 대표이사, 한국감정평가협회 부회장, 대표자협의회 의장직을 수행하던 중 협회 정관에 따라 이번에 부임하게 되었다.

한편, 11월 3일 이사회 결정을 통해 협회 부회장 및 기획이사로 부임한 김남성 부회장은 한나라당 의정부



김남성 부회장

갑 당원협의회 위원장과 경기도의회 제6·7대 의원을 지낸 바 있으며, 지난 지방선거 당시 한나라당 의정부 시장 후보로 출마하였으나 석패한 바 있다.

금융감독원, 은행권의 ‘담보물 자체 평가 확대’ 지양 권고

지난 11월 12일 금융감독원은 각 금융기관에 담보물 자체평가를 지양하도록 하는 지도공문을 발송한 데 이어 13일에는 금융기관 부은행장 및 관계자 등에게 이 같은 방침에 대해 직접 설명하는 자리를 갖는 등 이른 시일 내에 세부 기준을 마련하도록 권고했다.

금융감독원의 권고에 따라 향후 일정금액 이상의 담보물건에 대해서는 외부평가자들 중심의 담보평가가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된다는

점에서 은행권의 담보물 자체평가 행보에 강력한 제동이 걸렸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결정에 대해 감정평가업계와 협회는 담보평가시장은 물론 부실한 감정평가로 국가 경제 전반에 위협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었던 시안에 대해 관계 당국이 올바른 판단을 내렸다는 반응이다. 한편, 금융기관의 이러한 움직임에 신속히 대처하고자 지난 5월 신설된 협회 금융T/F팀은 향후 금융권의 반응에 촉각을 세우고 있으며, 건전한 담보평가 시장을 지키기 위해 자체 담보평가로 인해 발생할 담보가격의 신뢰도 하락, 부정대출의 위험성에 대해 지속적으로 관계기관에 알리는 노력을 하고 있다.

협회, 제22주년 창립기념식 개최



협회는 12월 7일 제22주년 창립기념식을 맞아 협회 연수실에서 기념식을 개최했다.

이날 기념식은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한나라당 간사인 강길부 의원, 전 환경부장관을 역임한 박윤흔 고문, 전 법제처장을 역임한 이석연 고문, 강영일 한국부동산연구원 원장 등 내외빈과 전임회장 및 법인 대표 등 많은 회원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되었다.

기념식은 이상필 회장 직무대행의 기념사에 이어 강길부 의원, 박윤흔 고문, 이석연 고문의 축사로 진행되었다.

협회, 외국 관계기관 교류 통한 글로벌시대 감정평가시장 활로 개척



협회가 외국기관과의 교류를 통한 제도연구 및 관계증진에 발 벗고 나섰다.

협회는 최근 각국에 필요한 정보교환 및 인적교류 등 다방면 협력을 도모하는 기틀을 마련하고 관계를 계속해서 발전시켜나가는 방안을 모색하고자 외국의 부동산 관련기관과의 협력을 다지는 여러 행사를 주최했다.

지난 11월 17일에는 일본보상컨설턴트협회를 초청하여 제7회 한·일 합동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날 주제는 “수용제도의 현실과 개선방안”으로 양국 제도하의 보상제도를 발표한 바 있다. 이와 함께 회원사의 외국기관과의 협약도 속도가 붙었다.

감정평가법인 해외법인간 업무협약 체결현황		
평가법인	협약 기관	협약 체결시기
삼창감정평가법인	Renda Real Estate Appraisal (중국)	4월
태평양감정평가법인	Korea-Cambodia Business Network(캄보디아)	5월
태평양감정평가법인	Cambodia Properties Limited (캄보디아)	5월
삼창감정평가법인(주)	Tanizawa 종합감정소 (일본)	6월
나라감정평가법인(주)	다이나믹마케팅 (일본)	10월
제일감정평가법인	ABSOLUTE (카자흐스탄)	10월
제일감정평가법인	AVESTA (우즈베키스탄)	10월
태평양감정평가법인	(주)오가타부동산감정사무소 (일본)	11월

협회는 지속적인 관계 유지를 통해 업계 발전에 도움이 되는 자료를 꾸준히 수집하는 것과 동시에 회원사들의 해외진출을 돕는 가교 역할을 적극적으로 전개할 방침이다.

지적재조사 특별법 하위법령 제정을 위한 공청회 개최



지적재조사 특별법이 지난 8월 2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이후 11월 16일 국토연구원에서는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시행규칙 제정안 공청회’가 개최되었다.

이날 공청회는 지난 9월 16일에 공포된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의 하위법령을 제정하기 위한 것으로 학계, 법조계 등 관련 전문가들의 의견을 듣고 본격적인 제도시행을 위한 세부기준을 마련하기 위한 자리였다.

공청회에서 이국철 교수(국민대)는 ‘지적조사가 국가발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특별과제를 발표하였고, 본 주제발표 순서에서는 ‘시행령·시행규칙 제정안’의 주요내용에 대하여 이준우 기획실장(법제연구원)의 사회로 류정호 교수(이주대), 성춘자 교수(남서울대), 손영실 변호사, 이종원 교수(호서대), 허강무 부장(부동산연구원)이 참석한 가운데 토론이 진행되었다.

국토해양부, ‘감정평가업자의 보수에 관한 기준’ 개정 고시

국토해양부는 감정평가 수수료 범위를 기존 기본수수료의 ±10%에서 ±20%로 확대하는 내용의 ‘감정평가업자의 보수에 관한 기준’을 지난 11월 24일 관보 고시했다.

금년 2월에 고시한 고액구간 수수료 세분화, 8월에 고시한 할인대상

명확화 및 공공용지에 대한 할인을 규정 개정에 이어 금년 들어 세번째 개정이다. 당초 국토해양부는 수수료 범위를 $\pm 30\%$ 로 확대할 방침을 예고하고 여러 기관의 의견을 수렴하였으며, 협회는 공정평가 훼손 및 대규모 실직 등의 이유를 들어 반대하는 의견을 제출했다. 한편 업계는 이번 보수기준 개정으로 향후 야기될 수입 감소에 대비해 여러 가지 대책을 세우고 있으며, 협회는 수수료 범위 확대로 인해 발생할 여러 사안을 신중히 검토하여 자칫 수수료 경쟁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관리·감독기능을 강화하는 한편 불필요한 경쟁을 막고, 회원들의 경제적 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한 제도마련에 최선을 다할 예정이다.

2012년도 법원감정인 직무교육 실시



협회는 지난 11월 8일 서울 광진구에 소재한 대공연장에서 2012년도에 각급 법원지원에서 소송 또는 경매감정평가 업무를 수행할 예정인 회원을 대상으로 직무교육을 실시하였다.

2012년도 직무교육은 오전과 오후로 나뉘어 오전에는 법원행정처 전후재 심의관의 법원감정에서의 주의사항이란 주제로 법원감정인에 대한 법원의 정책적·제도적 추진사항과 일선법원에서 법원감정인에 대한 민원 및 개선요구사항을 전달했다. 오후부터는 박송룡 변호사 등이 법원감정업무 수행시 발생될 수 있는 법적책임을 중심으로 강의를 전개하였다.

2012년도 법원감정인으로 활동이 예상되는 회원은 소송감정인 810명, 경매감정인 1042명이며 작년대비 약 10% 증가된 감정인이 2012년도에 법원업무에 참여할 예정이다.

부동산포럼 전문가 토론회 개최



협회는 지난 12월 1일 리베라호텔에서 '부동산가격공시제도의 나아갈 방향'이라는 주제로 부동산포럼 전문가 토론회를 개최했다.

협회는 그 동안 제기되어온 과세형평성 문제, 보상평가 등 감정평가 공정성에 대한 부동산가격공시제도의 문제점을 해결하고 감정평가 업계와 부동산학계의 전문지식 공유 및 제도를 더욱 활성화하기 위하여 5차례에 걸쳐 '부동산포럼 전문가 토론회'를 개최한 바 있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부동산가격공시제도의 합리적인 발전방향을 재조명하고 감정평가업계가 앞으로 나아갈 방향에 대하여 심도 깊은 논의가 이루어졌다.

2012년도 표준주택 선정결과 심사 실시



협회는 국토해양부와 함께 지난 11월 24일부터 11월 30일까지 서울, 부산, 대구, 광주 등 4개 권역에서 2012년 표준주택 선정결과 심사를 실시하였다.

이는 감정평가사가 수행한 표준주택 선정업무의 적정성 여부를 심사하여 2012년도 표준주택을 확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국토해양부 관계관과 부동산조사·평가협의회 심사위원 및 전국 251개 시·군·구 표준주택 가격담당감정평가사 1350명이 참여하였다.

심사결과 2012년 전국의 표준주택수는 약 19만호로 2011년도와 동일한 수준이다. 또한 표준지 선정결과 심사를 1월 2일부터 1월 6일까지 실시할 계획이다.